

#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나태주 시인



©정영욱

만약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나 물으면 대답이 제각각일 것이다. 그 대답은 시대마다 다를 것이요 나라마다 세대마다 다를 것이다. 흔히 물질적인 요소를 댈 것이다. 집, 재산, 돈, 물건과 같은 구체적인 것들이다. 어차피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조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럴 것이다. 더러는 명예나 의리, 정의, 자유, 사랑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대는 사람도 있겠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직장 문제나 승진 같은 것들이 다급할 것이다. 더 어린 세대들에게는 핸드폰이나 옷가지나 화장품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학교 공부나 성적, 진학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그러하다. 사람의 욕구나 소망은 천차만별이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것 또한 천차만별이다. 여기서 생각을 조금쯤 누그러뜨려 그 많은 것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자. 일찍이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세상에

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가 장미꽃. 둘째가 어린이. 셋째가 어머니 마음. 그 가운데 하나만 남긴다면 무엇일까, 물었을 때 서슴없이 그는 세 번째 답인 어머니의 마음을 댔다. 왜인가? 시간이 지나면 장미꽃은 시들고 어린이는 늙지만 어머니 마음은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매우 귀하고 귀한 이야기다. 핵심은 시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시간의 소중성을 십분 유념하면서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물보다 진한 것은 피다.’ 이 말에 보태어 나는 ‘물보다 진한 것은 피다. 그러나 피보다 더 진한 것은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죽었을 때 데미지를 입는 순서가 배우자, 자식, 친구, 부모, 이웃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모님한테는 송구스런 일이지만 부모님의 죽음은 예정된 것이기에 이 또한 시간의 법칙이 정해주는 순서가 아닌가 싶다.

생각해보면 건강과 젊음과 아름다움이 한 줄에 놓여 있다. 그것은 때로 돈이나 물질 같은 재화로 치환되기도 한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시간과 관계있다는 점이다. 결국은 시간이다. 시간이 결론이고 활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마땅히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살아야 한다. 시간이 황금보다도 천하보다도 소중하다. 그것을 젊은 세대들이 더욱 뼈저리게 깨닫고 실천했으면 한다. 하루 24시간, 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된 권리요 재산이다.

요는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느냐에 있다. 가장 나쁜 용처는 분쟁과 분노와 불평에 쓰는 것이다. 남을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에 쓴다면 그 시간은 쓰레기 같은 시간이 된다. 슬퍼하는 일에 쓰고 절망하는 일에 쓰는 시간도 좋은 시간은 아니다.

가능하면 좋은 일, 화사한 일, 아름다운 일에 시간을 써야 할 일이다. 사랑하는 일에 쓴다면 가장 좋은 쓰임이 될 것이다. 남을 위해 배려하고 봉사하는 일에 쓴다면 더욱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무릇 인생은 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시간과의 대결구조에 달려 있다.

세상에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요는 활용이고 선용이다. 그 책임과 권한은 오로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인 몫이다.

하루 24시간, 그것은 다시금 날마다 새날이고 날마

다 기적이어야 한다. 그 새날과 기적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들 인생은 또 성공이고 승리다.

이러한 시간과 더불어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아니,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고 나의 시간도 무의미한 것이기에 그렇다.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다. 언제든 나의 소중성을 잊지 말고 나를 사랑하자는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민을 오래, 많이 하지 않는다. 자기 앞에 고민거리가 닥쳤을 때 일단은 고민을 해본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결방법이 나오면 좋겠지만 방법이 안 나오면 그대로 밀쳐둔다. 잠시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른 일에 열중한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이다.

고민거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기 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릴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을 것이 있다. 그러기에 현명한 사람은 고민을 오래, 많이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다시금 정리해서 말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시간이다. 시간을 좋은 곳에 쓰는 일이 급선무다. 그 다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자.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

※나태주 : 시인.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공주사범학교 졸업. 2007년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되며 시인 데뷔. 37권의 시집과 13권의 산문집, 2권의 동화집, 4권의 시화집 등 출간. 2014년 그의 시 '풀꽃'을 기념하여 공주에 풀꽃문학관 개관, 풀꽃문학상 제정.

※본문의 주황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